

강기정 시장 “유의미한 약속 땀 민간공항 즉시 이전”

전남도·무안군에 신속 결단 촉구
“양 지자체 의사만 표현해도 추진”
광주시 자체 1조원 지원조례 준비
함흥차사 발언 “필요시 공개 사과”

“전남도와 무안군이 유의미한 약속이나 의사표현만 해도 지금 당장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의 연내 조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24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은 지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심의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유의미한 약속이나 의사표현을 해준다면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전남도 2자 합의, 소음 토론회, 지원 대책 마련,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논의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17일 전남도와 합의했던 ‘의미 있는 진전’은 광주시가 봤을 때 없는 상태이며 수년 전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최근에는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건의해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당론으로 채택, 태스크포스(TF) 구성, 3자 이야기 마련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구체화 하되,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군공항 무안통합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과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일단 광주시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1조원을 무안군에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합의문에 있는 비전 토론회도 10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전남도가 광주시를 겨냥해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기금을 통한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장소와 최대 5년의 기금 운용 시기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시민 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강 시장의 ‘함흥차사’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개 사과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시 ‘함흥차사’ 발언은 “양



수확 앞두고 쓰러진 벼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전남지역에 내린 폭우와 강풍으로 수확철을 앞둔 벼들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4일 해남 문내면의 한 논에는 쓰러진 벼 사이로 군데군데 벼멸구가 발생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부남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전남도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폄하 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면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군 3조원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무안군수와 3자 회동을 안내하고,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해줬고, 전남도의 변화한 모습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립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항 이전 당론 채택을 요청한 데 이어 25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정부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22대 국회 첫 국감... 광주·전남 내달 14일 개시

전남도 21일·광주시 22일 실시
한전·교육청·경찰청 등도 대상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8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요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감은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가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에 대한 현장 국감으로 시작한다. 산자위는 15일

까지 나주 등에 머물며 현장시찰도 진행한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북·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전남·북·제주대학교, 전남·북·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사를 펼친다.

21일과 22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각

국회 상임위별 광주·전남 국정감사 일정		
날짜	상임위	피감기관
10월 14일	산자위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
10월 17일	교육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전남대·전남대병원
10월 21일	행안위	전남도청·전남경찰청
10월 21일	농해수위	여수항만공사
10월 22일	행안위	광주시청·광주경찰청
10월 23일	기재위	광주지방국세청

각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

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오전 여수 고수온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경찰청, 부산·인천·여수·울산항만공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위원회의 현장 국감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서 진행된다.

각 국회 상임위는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정 등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